

삼락농정 · 농생명 벨리 추진 속도

(아시아 스마트)

도, 농림수산예산 국비 7207억원 확보 전년 대비 6.8% 458억 증가... 신규 21건 · 중앙공모 18건

전북도는 내년도 농림수산예산 7,207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삼락농정' 및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 사업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림수산분야 정부예산은 19조 4,404억으로 전년대비 0.01% 증가에 그치는 등 보수적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정부의 사업 기조인 국정과제(아시아 스마트 농

명 벨리 조성 등)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가축질병 예방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전북 농림수산분야 국가예산은 7,207억원으로 전년대비 6.8% (458억 원)가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은 21건에 574억원, 중앙공모사업 18건 243억원으로 '삼락농정' 및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을 뒷받침함으로써 민선 6

기 농정 핵심시책 추진의 순환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재정부가 대선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조기에 반영한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을 통해 첨단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생명 산업의 감점을 최대한 살리

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농생명 연구기관 등의 협업체계를 강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민간육종연구단지 구축' 등 19개 주요사업의 예산확보 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스마트 벨리 조기에 조성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 수료

전북도는 지난 15일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십을 마무리하고 인턴들을 격려하기 위한 수료식을 도청 중회의실에서 했다.

공공기관 직무인턴은 도내 대학생들을 비롯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업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26개 공공기관에서 88명의 인턴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22개 공공기관에 77명이 배치되어 1:1 전담 멘토의 지도에 따라 전공 관련 업무와 현장실습을 직접 경험했다.

수료식은 인턴들의 실습 소감을 기관별 발표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인턴십 수료증 전달, 간부들의 격려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사전에 22개 공공기관 중 인턴 참여가 많은 기관(4개소)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인턴의 근무상태와 실습 환경 및 부서별 업무교육 이행상태를 점검했다.

인턴의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관별 멘토와 멘티 간 취업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교류 및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료식에는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턴실습의 만족도와 개선점 등의 의견을 수렴·분석한 결과를 향후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시 반영할 계획이다.

수료식에 참여한 인턴들은 "전공직무 체험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취업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턴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자원봉사발전재단위원회 2017 전북도 자원봉사발전재단위원회가 지난 15일 전주 참여우명포리사 3층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지사, "균형발전 · 자치분권 같이 가야"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 열려... 안국찬, 주민 참여 강조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지역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를 했다.

토론회는 송하진 도지사,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등이 참석,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안국찬 전북대

교수 등 7명이 토론자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전북대 안국찬 교수는 "자치분권은 실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다"며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역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분권은 지역 간 갈등과 격차 심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함께 가야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권역별 토론회를 지속 개최 예정으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2018년 전북형 취업지원사업 추진

참여 희망업체, 내년 1월 5일까지 신청

청년 · 중장년 구직자, 내년 1월 11일~31일까지

전북도는 청년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8년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5일 도에 따르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도내 청년(만18~39세) 370명에게 꿈을 가지고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만 40~59세) 200명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인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수의 30% 범위(중장년 40% 범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 취업지원은 도내 청년층(만18~39세)을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60만원이상 지급 시 월 50~65만원(대기업 60만원) 4050 중장년 취업지원은 중장년층(만 40~59세)을 대상으로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60만원이상 지급시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최대 300만원(중장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 구직자들은 2018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온라인(www.1577-0365.or.kr/young)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참여기업은 신청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모집 이후에도 기업 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구직자를 연중 수시모집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특히, 2018년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참여 기업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전북 일자리 대표 브랜드 시책인 '전북형 청년취업지원'과 '4050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희망 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2018년 1월 5일까지 기업소재지 시군에 참여 신청(방문·우편접수)을 하여야 하며, 전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1577-0365.or.kr/young)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업체는 상시근로자 5

명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수의 30% 범위(중장년 40% 범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 취업지원은 도내 청년층(만18~39세)을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60만원이상 지급 시 월 50~65만원(대기업 60만원) 4050 중장년 취업지원은 중장년층(만 40~59세)을 대상으로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60만원이상 지급시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최대 300만원(중장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 구직자들은 2018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온라인(www.1577-0365.or.kr/young)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참여기업은 신청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모집 이후에도 기업 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구직자를 연중 수시모집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재선충병, 정읍 용계동서 추가 발생

내년 3월 31일까지 긴급 방제대책 추진


재선충병이 신태인을 연정리로부터 11.8km 떨어진 망제동 일원에서 추가로 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 15일 정읍산림조합에서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4.117ha)하여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전문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발생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예찰반을 구성, 12월 13일까지 발생지역 5km 이내 산림전체에 대한 추가 감염목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용계동에서 2번의

재선충병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제작업은 발생지역의 연건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발생목 주변 20~30m)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방제지역 주변에는 예방나무 주사과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나무류 이동 반출이 제한되므로 지역주민의 협조와 죽어가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 도산림복지과 280-3122)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시골아있네!

원광대학교

창립선도대학 | 1학과 1특허 1기업 창업 프로그램
 아시아 중심대학 | 아시아 종자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 | 국내 대학 최초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획득
 경쟁력 있는 대학 | 정부 재정지원 사업 1,110억 수주(전국 상위권)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8. 1.6(토) ~ 1.9(화) ☎063-850-5262~4(입학관리과)

프린팅 사업 대형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교육부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ISO 26000 이행수준 최고등급 획득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